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1월 25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우리에게 향하신 / 다같이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5번 (시편 8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찬송가 95(신) 82(구)

기도 / 한규철 집사

성경 봉독 / 마태복음 6장 19-34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두 나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 찬송가 350(신) 39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 주권을 스스로 쥐고 필요와 안전을 먼저 계산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 눈이 어두워지고, 두 주인을 섬기며, 의식주를 염려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 작은 모습입니다.
2. 작은 믿음은 곧 두 나라를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실제 삶은 재물, 안전, 편리함, 미래 계획 같은 세상의 왕좌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분열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두 나라 사이에서 끌려 다니는 증상입니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하루씩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루 단위로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33절)이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의 신뢰가 두 나라 사이에서 마음을 통일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 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뽑지 말고
의지하라

마 13:24-30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나라

예수님께서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지금은 사람과 상황을 성급히 구분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자라게 두어야 할 때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알곡만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한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집단의 완성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 사역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맡기는 중언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과 위기의 순간에 미리 준비한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보호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맡기는 신뢰의 삶입니다.

알곡의 언어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참된 알곡의 모습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내 입술을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담대함과 인내를 성령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기 확증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 의존의 언어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다음 주일에 성찬식 있습니다.
5.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경공부,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한미숙(1)		조창(8)	박승화(15)	한광기(22)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시선은 늘 불안한 미래와 당장의 필요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삶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산만한 마음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 단위의 신뢰를 요청하십니다.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듯,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순종도 하나님의 통치에 마음을 열기 위한 훈련입니다. 삶이 불확실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작은 믿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삶입니다.